『中國學』第71輯 (2020.06.30)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0.71.71.13
pp.243-267 ISSN : 1229-9618

근대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 동아시아 근대 출판의 성립과 이동을 중심으로

서광덕**

【목 차】

1. 들어가며
2. 근대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 형성의 기반
   1) 서양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중국의 근대 출판
   2) 상업 출판에서 비롯된 일본의 근대 출판
   3) 일본의 영향으로 시작된 조선의 근대 출판
3. 동아시아 역내 서점과 책의 이동
   1) 일본인 서점의 중국 이동
   2) 일본인의 조선 이주와 서점의 이동
   3) 중국 출판물의 조선 이동
4. 나오며

【초록】

근대는 활자 미디어의 시대이다. 활자의 발명은 인쇄술의 혁명을 가져왔고, 인쇄술의 발달은 대량의 신문잡지와 책의 출판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들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근대적인 출판이 시작된 곳은 바로 해역도시들이었고,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지식이 전파되기도 하고 또 수용되기도 하였다. 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skd2021@hanmail.net)

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식의 수용과 전파는 이렇게 형성된 동아시아 출판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근대 동아시아의 출판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피고,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이 해역도시들 간에 어떻게 이동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여기서 도서만이 아니라 출판업 곧 인쇄소, 출판사, 서점 등의 하드웨어 자체가 이동한 것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이것은 근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출판의 대중화와 산업화가 이 지역 사람들의 근대적인 지식을 전유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아가 동아시아의 인문네트워크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다.

【키워드】 출판, 인쇄, 서적, 해역도시, 네트워크, 동아시아, 세계화

1. 들어가며

20세기말부터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는 인문사회학 전반에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이것은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의 세계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로 인한 사회와 문화의 변용에 더 초점을 두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이 '세계화'는 비단 현재 시점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력에 의해 근대화가 진행된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헬드(David Held)는 일찍이 세계화를 전 역사 시대에 걸친 이주, 세계종교의 전파, 대제국의 압력, 서양국민국가와 자본주의 그리고 그 이념의 초국가적 흐름, 글로벌 언어로서의 영어 지배화와 같은 각 시대를 가르는 현상을 단계적으로 다루며, 세계화를 4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는 전근대(1500년 이전)로, 미국 및 유라시아 대륙의 대제국 내부에서 미개척지로의 이동이 일어난 단계다. 2단계는 근대 초기(1500-1850년) 서양이 발흥하여 세계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세계적인 확대가 진행되었다. 3단계는 근대(1850-1954년)로 영국 중심의 서양 지배에 의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19세기 중엽까지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전화, 전보, 라디오, 철도, 운하, 선박)로 인해 유럽의 사람, 사상, 종교가 이민과 함께 전 세계로 확대된 단계다. 4단계는 현대로 국민국가 간의 세계적 규모의 조직 형성, 구미의 힘 상대화, 통신 교통기술의 진보에 의한 사람, 물건, 이미지, 상징의 교류 양과 속도의 확대가 이루어진 단계이다.[1] 이

런 구분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은 바로 세계화의 두 번째 단계 즉 근대 초기에 들어와서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한다. 물론 같은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세계화와 접촉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다.

우리는 헬드의 세계화에 대한 정리를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할 경우, 근대 초기의 세계화는 일차적으로 서구화 또는 근대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근대화의 과정에서 문화의 흐름은 서구를 시발점으로 동아시아를 향해 일방통행식 흐름이 형성된다. 헬드의 3단계 현상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서구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 과정에는 교통과 통신, 미디어의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글로벌 네트워크에 동아시아 지역이 편입되면서,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얘기한 것처럼, 인쇄술의 발전과 이로 인해 나온 모국어 출판물에 의해 '국민'이라는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 즉 국민국가의 형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화의 과정에 개별 국가적 근대화의 이행이 동시에 전개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날 세계화의 핵심적인 문제를 '문화적 동질화와 이질화 사이의 긴장'이라고 본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의 시각을 참조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문화'는 전지구적으로 동질화와 이질화 사이에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중심-주변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이동배치(displacement)되는 질서이다. 오늘날 세계화에 관한 논의는 탈근대성 혹은 근대성에 대한 반성적 논의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세계화의 탈영역적 성격이 동태적이고 자유로운 지역횡단의 가능성과 새로운 글로컬 문화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2)]

이와 같은 세계화에 대한 시각은 문화는 서양에서 동아시아로의 일방적 흐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곧 문화제국주의가 주장하듯, 세계화가 제국주의적 문화가 로컬의 문화를 동질화·획일화하는 과정이 아님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개별 국가적 근대로의 이행이 세계화에 대한 서구 일변도의 방향이라는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과 현대화라는 현상을 서구화와는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적 텍스트는 각각의 로컬한 컨텍스트에서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고 해석되며 재문맥화되고 있는"[3)] 것이다. 물론 아파두라이는 이러한 세계화의 바탕에는 전자미디어에 의한 트랜스내셔널한 세계의 일상화라는 사실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4)] 이것이 문화의

1) 데이비드 헬드, 앤터니 맥그루, 데이비드 골드브라트, 조너선 페라턴 지음, 조효제 옮김, 『전지구적 변환』, 창비, 2002
2)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역,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3) 요시미 순야(吉見俊哉), 박광현 역,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동국대 출판부, 2008.
4) 문연주, 「출판을 통해 보는 일본 문화의 세계화」, 『인문언어』, 12-2, 2010, pp.479-487.

세계화를 추동하여 지역횡단의 가능성과 새로운 글로컬 문화형성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데, 이러한 문화의 세계화라는 현상은 근대 시기에는 문화를 텍스트의 형태로 담고 있는 출판물의 국제적 유통과 수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문화의 세계화라는 시각을 근대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그 인문네트워크의 형성과정에 대해 검토하되 주로 출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활자 인쇄 출판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얼개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시기적으로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초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 출판에 대한 것인데, 서구화라는 형태의 근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역시 로컬한 컨텍스트에서 다른 형태의 반근대화도 진행되었고, 이것이 출판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한적(漢籍)의 출판과 보급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지양하고, 초보적으로 인쇄소, 출판사, 서점, 서적 및 잡지, 유통, 저역자, 독자라는 근대적 출판의 메카니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가운데서도 동아시아의 근대적인 출판사 또는 서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양상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내에서 근대적인 지식의 유통이 하드웨어적인 측면 곧 출판사나 서점의 실제적인 이동에 의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5)]

2. 근대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 형성의 기반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형성에 있어서 그 물질적 기반에 해당하는 것은 책과 신문잡지 등의 유통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지식은 일부 지배층의 소유였고, 그것이 그 지배를 강화해주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일부 계층의 소유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지식의 유통과 관련되었다.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의 제작과 유통의 제한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봉인이 해제된 것이 바로 근대라는 시기다. 이 장에서는 근대적인 형태의 출판(주로 인쇄소, 출판사, 서점 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중일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

5) 출판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지식의 유통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유통의 주요 대상인 책과 같은 활자 인쇄물을 언급해야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 유통을 담당하는 출판업의 주요 대상인 서점 또는 출판사(서점 기능을 가진)의 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양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중국의 근대 출판

중국의 근대 출판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네토우 게이슈(實藤惠秀)[6]의 논문에서 간략하지만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는 사네토우의 정리를 바탕으로 서술한다. 인쇄출판과 관련해서 중국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남겨진 기록물의 시기와 분량 그리고 일관성이 증명한다. 이것은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에서 비롯되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수나라 때 인쇄술이 일어난 이후 당나라 때 목판인쇄술이 명나라 때 동(銅)활자가 발명되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서 서양식 활자로 한문인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1819년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밀른(W. C. Milne)과 중국인 기독교신자 채고(蔡高)와 함께 말라카에서 『신구약성서』 한역판을 인쇄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대소 7종의 활자를 만들고 이를 서양 활자와 결합하여 인쇄할 수 있게 된 곳이 미화서관(美華書館)이었다. 이 미화서관은 마카오에서 상하이로 옮겨온 뒤 동치(同治)에서 광서(光緖) 년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이 설립되기까지 신식인쇄의 중심이었다.

한편 서구의 석판(石版)인쇄도 1876년에 상하이 서가회(徐家滙)의 토산만인쇄소(土山灣印刷所, 천주교 관계)에 들어왔다. 석판인쇄가 일반서적에 이용된 것은 신보관(申報館)의 부설사업이었던 점석재인서국(點石齋印書局)이 효시다. 여기서 인쇄한 『강희자전』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환영을 받았는데, 이를 보고 1881년에 동문서국(同文書局), 배석산방(拜石山房)이란 석인전문 서점이 설립되었다. 석판인쇄는 염가로 고서를 제공하였고, 또 광서 중엽부터 신문화를 수입하는 무기이기도 했다. 석판인쇄의 고전이 상하이의 석판본으로서 일본에 수입되어 교과서 등에 사용되었다고 전한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석판본은 조선에도 많이 전래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중국의 근대인쇄는 일본의 기술을 많이 수용하여 상하이에는 중일합작의 서점이 다수 생겼다. 이는 일본의 중국유학생이 번역물을 일본 인쇄소에 맡겨 출판하고, 또 일본 서점이 중국의 한문서를 출판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일본 서점이 상하이 진출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 출판의 영향으로 중국 출판물이 양장제본(洋裝製本)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에서 서양의 인쇄술 수용과 함께 출판사(서점)도 설립되었다. 이는 중

---

6) 実藤恵秀(1896-1985), 중국연구자. 히로시마현 출신, 와세다대학 문학부 지나문학과 졸업, 1935년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등의 중국문학연구회에 참가. 1960년 「中国留日学生史の研究」로 문학박사 취득, 와세다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에 『中国人日本留学史』(くろしお出版, 1960), 『近代日中交渉史話』(春秋社, 1973) 등이 있다.

국에서 서양 신문물의 수입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특히 개신교도의 공이 컸다. 난징조약이 체결되고 각국의 선교사가 중국으로 몰려들어 교회, 병원, 학교를 세우고, 또 문서전도와 계몽운동을 위해 출판사를 설립했다. 1877년에 윌리엄슨과 프라이어가 각 교회의 공동사업으로 익지회(益智會)를 만들었다. 1887년에는 윌리엄슨이 따로 광학회(廣學會)를 만들었으나, 청일전쟁 전까지 중국인의 관심도 적고 영업이익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청일전쟁 이후 신학(新學)에 대해 주목하면서 광학회가 발간한 서적에 대한 지식계급의 관심도 늘었다. 한편 청정부도 신식 출판을 추진했는데, 동문관(同文館)과 강남제조국(江南製造局)을 세우고 또 전국 각지에 관서국(官書局)을 설치했다. 여기서는 일본이나 서양의 서적을 편역하여 교과서로 쓰기도 했다.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서적을 한역(漢譯)하려고 했다. 특히 일본유학생들에 의해 일본책의 한역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만든 단체가 역서휘편사(譯書彙編社), 교과서역집사(教科書譯輯社), 유학역편사(游學譯編社), 호남편역사(湖南編譯社) 등이었다.

그런데 유학생들이 발행한 책은 아사쿠사(淺草)의 병목인쇄소(並木印刷所)와 우시고미(牛込)의 상란인쇄소(翔鸞印刷所)에서 많이 나왔다. 지금의 대일본인쇄(大日本印刷)가 된 일청인쇄(日淸印刷)도 이런 의미에서 설립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학생의 활동에 대응하여 일본의 서점도 중국을 겨냥한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원래부터 있었던 부산방(富山房), 삼성당(三省堂) 외에 새롭게 시작한 동아공사(東亞公司), 태동동문국(泰東同文局), 작신사(作新社) 그리고 보급사(普及社), 선린역서관(善隣譯書館), 규문당서국(奎文堂書局), 개발사(開發社) 등이 있었다. 특히 상하이에 본사를 둔 작신사 외에 인쇄전문이었던 수문인쇄국(修文印刷局)이 청일전쟁 뒤 재빨리 상하이에 생겼고, 이를 전후하여 상무인서관이 설립되었다. 원래 인쇄전문이었던 상무인서관은 1897년에 시작하여 1900년에는 수문인쇄국을 인수하고, 1906년에 발간한 교과서가 학제(學制) 제정(制定) 초기의 소등소학 교과서 인정을 받아 대량의 교과서 출판을 시작했으며, 청말까지 매년 신간서를 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신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서점이 많았는데, 강유위와 양계초를 중심으로 한 광지서국(廣智書局) 외에 문명서점(文明書店), 개명서점(開明書店), 군익서점(羣益書店), 신민역인서국(新民譯印書局), 중국도서공사(中國圖書公司), 신지사(新智社), 회문학사(會文學社), 통사(通社), 소설림(小說林) 등이 번창했다.[7] 등이 번창했다. 또 이들이 낸 책은 대체로 일본책이며, 인쇄기술이나 인쇄용품도 일본과 연관이 있었다. 하지만

7) 이밖에도 낙군서국(樂羣書局), 군학회(羣學會), 보급서국(普及書局), 창명공사(昌明公司), 계문사(啓文社), 표호서실(彪豪書室), 시중서국(時中書局), 유정서국(有正書局), 홍문서국(鴻文書局), 신세계소설사(新世界小說社) 등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근대 초기 중국 출판사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큰 연구과제이다.

상무인서관을 제외하고 다른 서점은 점차 세력을 잃었다.

민국이 수립된 이후 상무인서관에 대항하여 중국인의 자본으로 민국원년에 창립된 것이 중화서국(中華書局)이었다. 상무인서관도 1914년에 중국 국내 자본의 회사가 되었다. 상무인서관과 중화서국은 상하이 허난로(河南路)에 함께 있었으며 당시 출판계의 쌍두마차였다. 1919년 오사운동이후 '신흥서점'이 부상했는데, 대동서국(大同書局), 세계서국(世界書局)외에 북신서국(北新書局), 창조사(創造社), 현대서국(現代書局), 광화서국(光華書局), 개명서점(開明書店), 대강서포(大江書舖), 신월서점(新月書店), 생활서점(生活書店), 상해잡지공사(上海雜紙公司), 문화생활출판사(文化生活出版社), 화통서국(華通書局) 등[8]이 있었다. 하지만 전 중국출판물의 절반은 상무인서관이, 4분의 1은 중화서국이 나머지를 중소서점이 출판했다고 한다.[9]

2) 상업 출판에서 비롯된 일본의 근대 출판

앞에서 중국의 근대 출판이 서양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점을 강조해서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사상사 연구자이자 교육학자인 츠지모토 마사시(辻本雅史)가 "근대가 문자와 인쇄의 미디어를 기저로 한다는 점에서, 근세 일본은 근대 국민교육이 보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미디어사의 관점으로 보면 일본의 근세와 근대는 연속적"[10]이라는 평가를 내렸던 것처럼, 에도 시기에 활성화된 상업출판이 일본 근대 출판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

에도(江戶) 중엽 이후 일본 사회는 시장경제의 성장으로 출판문화도 발전하였다. 시장경제의 성장과 서적의 보급 및 수용이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보다 정보와 관련될 것이다. 정보는 자연스럽게 지식으로 연결된다. 곧 중인 계급인 조닌(町人)층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사설 교육기관인 데라코야(寺子屋)가 설치되어 서민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식자층이 증가하였다. 또 교통망이 갖추어지고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문화가 지방으로 전파되고 유통망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고가였던 서적이 서적중개상을 통해 독자들이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빌려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상품시장경제 하에서 서적의 유통과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서적은 광고매체로서의 성격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적의 경제적 가치도 증가하였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근대 이후

---

8) 이외에도 근대 이후 번창한 서점으로 진선미서점(眞善美書店), 낙군서점(樂群書店), 신주국광사(新州國光社), 태평양서점(太平洋書店), 신생명서국(新生命書局), 민지서국(敏智書局), 수지서국(修智書局) 등을 들 수 있다.

9) 實藤惠秀, 하동호 역, 「近代中國의 出版文化」, 『出版學硏究』, 1971, pp.43-50.

10) 辻本雅史, 「'教育のメディア史'における '江戶'-'文字社會'と出版文化」, 『교육사학연구』, 제20집 제2호, 2010, 요약문.

신문에 광고를 싣는 것과 같은 일이 이미 서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서적이 지닌 경제적 가치는 막부시기부터 일본의 출판업을 대도시인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에도(江戸)에서 시작하여 지방으로까지 확대 발전시켰다. 게다가 처음 교토에서 발전한 서점이 에도에 진출하여 에혼(絵本)이라는 그림(이미지) 중심의 대중서와 우키요에를 출판하여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그림을 중심으로 한 에도시기 일본 출판업의 흥기는 표해록(漂海錄)이나 심지어 지방 어촌의 어장도(漁場圖)에 이르기까지 그림 곧 이미지로 기록을 남기는 일에 능한 일본적 전통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에도 시대 통속 소설 작가인 게사쿠샤(戯作者)들은 약이나 잡화 등을 제조 판매하며 부수적인 수입을 얻기 시작하였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서적에 출판물만 아니라 약, 화장품, 잡화 등에 대한 광고를 실어서 서적 중심의 시장경제가 더 확대되었다.[11]

일본에서는 서적의 대중화 및 상업화의 흐름과 함께 이미 17세기에 문자 그리고 인쇄가 보급되었다. 이로 인해 처음으로 아동들이 배우는 문자 학습의 장(手習塾)과 직업적 교사가 보급되었고, 그 결과 문자 학습이 서민들에게까지 침투하였으며, 동시에 일본 전역에 지역차가 없는 동일한 문자문화가 확산되었다. 또 17세기 전반의 상업 출판은 지(知)의 상품화를 유발했다.

일본 출판계는 1890년 이후 기업화된 출판사가 탄생하여 상업 출판시대가 시작되었다. 특히 1887년은 출판의 기업화에 이정표가 되는 해였다. 박문관(博文館), 민우사(民友社)와 같이 영향력 있는 출판사들이 창업했고, 도쿄서적상 조합이 설립되는 등, 서적의 출판 및 유통 방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는 박문관이 기업형 출판사로 성장할 만큼 출판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였다. 박문관은 1895년에 새로운 종합잡지 『태양(太陽)』을 발간했다. 박문관은 이전에 발간하던 12종의 잡지들을 통폐합하고, 크게 『태양』, 『소년세계(少年世界)』, 『문예구락부(文藝倶樂部)』 3종류를 새로 간행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태양』에 대해 박문관은 재정이나 필진 구성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태양』의 등장은 민우사가 발간하던 『국민지우(國民之友)』[12]에 커다란 타격이었다. 그리고 『태양』은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국 및 조선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잡지의 형식과 내용, 문체 그리고 인쇄에 이르기까지 본보기가 되었다.[13]

---

11) 김학순, 「전근대 일본의 서적에 의한 광고 -출판물과 상품 선전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50, 2019, pp.66-67.

12) 1887년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가 발간한 일본 잡지. 평민주의를 제창하고, 민중의 입장에서 서양 문화의 섭취를 주장.

13) 함동주, 「일본제국의 성립과 박문관의 출판활동 -청일전쟁기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13, 2010. 서광덕, 「근대 동북아해역 교통망과 지식네트워크 -청말(淸末) 중국유학생과 그 잡지

이처럼 1890년대 이후 일본의 출판계는 출판물의 종류와 출판량이 크게 늘었고, 또 성격도 다변화하였다. 최신 서양학문을 소개하는 전문서적에서부터 아동 대상의 소설류까지 그 종류와 성격이 아주 다양했다. 각종 실생활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서 종류도 그 중의 하나였다. 안내서 종류는 직업, 여행, 교통(철도), 도시(도쿄, 교토), 입시, 학교나 진학, 그리고 이민과 이주 등의 다양한 주제에 걸쳐 출판되었다. 안내서의 특징은 다른 출판물들이 지식인들이 주 수요층이었던 것에 반해, 실제 생활상의 필요를 지닌 일반인들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890년부터 매년 출판된 대표적인 진학 안내서인 『동경유학안내(東京遊学案内)』는 도쿄의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지방 학생층이 주된 수요층이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도쿄의 교통, 도쿄에서의 생활관련 정보를 비롯해 각급 학교들에 대한 소개 및 진학 정보를 망라하였다. 그 대상은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 전반에 걸쳐 있었으며, 그 중에 '이민'·'이주'를 위한 안내서도 출간되었다.[14] 이처럼 근대 초기 일본의 출판 형태는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정보의 차원에서 전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3) 일본의 영향으로 시작된 조선의 근대 출판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에서 서적을 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1561년(명종 6년)인데, 서사(書肆)라는 서점을 두어, 지물, 곡류, 면포 등의 대납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인조 말기인 1649년부터는 근대식 출판사의 형태를 취하여 각판(刻版)에 지역이나 판가(版家) 명칭이 표시되기 시작하여, 19세기 초 이후에는 상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종래의 양반 지식층에 읽히던 서적들이 한글로 인쇄되고 영리적 수단으로 보편화하여 방각본들의 판매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15] 이런 가운데 조선에서 연활자(鉛活字)에 의한 근대적인 출판이 시작된 것은 1883년에 고종의 허가를 받아 활판인쇄기기가 도입된 박문국(博文局)을 설립한 것이 시초다.[16] 그리고 그 해 10월 1일 국내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인 이노우에 가쿠고로우(井上角五郎)는 박문국 설치와 『한성순보』 창간 단계부터 관여하고 있었

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2020. 참조.

14) 함동주, 「러일전쟁기 일본의 조선이주론과 입신출세주의」, 『역사학보』, 221, 2014, pp.184-187.

15) 류현국, 「경술국치 이후, 국내 출판 인쇄계의 동향(1890-1945)」,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ultural Product Art & Design』, Vol 40, 2015, pp.136-137.

16) 이 과정에는 박영효를 비롯한 개화파들이 1882년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수동식 활판인쇄기와 활자,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추천한 신문 편집 및 인쇄 기술자를 대동하고 귀국했던 일이 포함된다.

으며, 또 『한성순보』에 게재된 외국 기사의 대부분은 일본과 중국의 신문에서 가져왔다. 그러나 『한성순보』는 갑신정변으로 곧 중단되었고, 이를 대신해 1886년 1월 25일 『한성주보』가 창간되었으나 이 역시 운영난으로 1888년에 폐간되었다.

근대적 인쇄기술이 도입되자 다양한 민간출판기관들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출판에 대한 인식 역시 바꾸었다. 19세기 후반 서적을 제작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서적을 인쇄하여 낸다'는 뜻으로 쓴 개판(開板)이, 인출(印出), 인행(印行), 인서(印書) 등의 구식 용어 대신 출판이란 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84년 3월 18일자 『한성순보』의 '각국근사(各國近事)'라는 기사에 의해서였다.[17] 아울러 활판, 활판소, 할판술, 연활자와 같은 전문용어들도 등장하였다. 근대적 인쇄술로 인해 1896년에는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었고, 이어서 『매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의 신문들이 간행되었다. 신문의 종수는 1900년을 전후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발행 주체도 개화, 보수, 종교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처럼 신문이 늘어난 것은 청일전쟁과 동학혁명, 갑오개혁, 을미사변 등의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으로 열강의 이권침탈이 본격화되면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내부적으로 급속히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박문국을 비롯한 관(官)에서의 본격적인 (서적)출판은 1895년 학부령이 반포된 이후 학부편집국에서 교과서를 출판하면서부터이다. 이는 민족 교육의 염원에 따른 것이지만, 1910년 이후부터는 주권적인 교육 수단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관을 대신해 민간에서의 서적 출판이 추동되었는데, 이는 계몽운동의 일환으로서 나타났다. 본격적인 출판운동이 1905년 이후의 계몽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국문운동, 교육운동과 함께 출판운동은 계몽운동의 핵심적 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신서적 출판의 성공 여부가 계몽운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인식할 정도로 서적출판은 학교설립보다 절박한 과제로 인식했다. 박영효는 "서적이 없으면 능히 배우지 못하니, 문명한 나라에서는 서적이 풍부하고 넉넉하다"[18]고 했고, 『만세보』에서는 활판술을 5대 부강 문명(철도, 기선, 전신기, 체신)의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19] 1894-1910년 사이의 출판 경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과용 도서 출판 둘째, 서구 서적의 번역·번안·편술 등에 의한 출판 셋째, 기독교 계통의 출판 넷째, 근대적 활판 설비를

---

17) 『한성순보』의 지면은 국내관보(國內官報), 국내사보(國內私報), 각국근사(各國近事), 논설(論說)로 나뉜다. 이 가운데 외국기사인 각국근사와 논설이 전체 73.2%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순보가 외국기사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성순보』가 인용한 외국기사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는 한보람,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립」, 『진단학보』, 100, 2005. 참조.

18) 박영효 상소문 중 제6항 "…鑄活字 造紙 而多設印板所 以繁富書籍事…而無書籍 則不能學 故文明之國 書籍殷富….", 1888.1.13.

19) 「論富强文明之五大利器」, 『萬歲報』 제143호, 1906.12.15.

갖춘 신문사들의 출판 다섯째, 동양고전의 복간이나 해설서 출판의 활성화[20] 등이었다.

강명관은 개화기 이후 출판 상황을 출판사, 인쇄소, 서점과 서적종람소, 출판인과 저자 및역자와 편찬자 등으로 나뉘어 정리하였는데, 민영인쇄소는 이미 광인사(廣印社, 1883)를 시작으로 신구서림(新舊書林, 1887), 이문사(以文社, 1896), 회동서관(匯東書館, 1897) 등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1893년부터 1905년까지 출판물을 낸 민간출판사는 탑인사(搭印社)부터이고, 이후 광문사(廣文社, 1901), 박문사(博文社, 1903), 광학사(廣學社, 1905)가 출판과 인쇄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후 1905년 이후부터 1910년까지 새로 설립된 출판사는 1908년에 19개소가 될 정도로 매년 급속히 늘다가 이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는 경성을 제외하고 평양과 대구 등 지방의 대도시에도 출판사가 설립되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광문사(1906), 석실서관(1908), 평양의 협성서관, 광명서관, 대동서관, 태극서관 등이다. 1905년 이후 출현한 민간 출판사는 서점을 겸하기도 했고, 또 인쇄소를 겸한 곳도 있었다.[21]

1900~1910년 주요 서점 겸 출판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로 일대의 주요 서점 겸 출판사: 광학서포(김상만), 회동서관(고제홍), 박문서관(노익형), 서관(남궁준), 신구서림(지송욱), 보문관(홍순필), 중앙서관(주한영), 보급서관(김용준), 유일 현채가·현공렴가(현채·현공렴 부자) 둘째, 출판 자본의 성립: 신문관(최남선, 1908~1918), 동양서원(민준호, 1910~1913), 신문사(新文社, 다케우치 로쿠노스케竹內錄之助, 1913~1920) 셋째, 군소 서점 겸 출판사: 옥호서림(정인호), 오거서창(이해조), 대창서원(현공렴), 대한서림(정운복), 박학서원(구승회), 이문당(고광규), 수문서관(박희관), 문익서관, 동미서시, 대동서시, 왕래서시, 운림서원, 광한서림, 광동서국, 한성서관 넷째, 주요 인쇄소: 광문사, 광학사, 박문사, 신문관, 우문관, 보성사, 성문사, 창문사, 탑인사, 흥문사, 보문관, 보인사, 보진재인쇄소, 일신사, 창신사, 광제사, 문명사, 휘문관, 동문관, 문아당인쇄소, 법한회사 인쇄부, 보명사, 선명사, 조선인쇄소, 조선복음인쇄소, 인쇄공업조합회사(1906)[22] 등이다.

한편 서적 판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서점이 생긴 것은 1905년부터인데, 이런 서점의 대량출현은 서적의 수요가 증가하고, 서적이 시장성이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를 공급할 도로와 철도 등 교통수단과

---

20) 이종국, 「개화기 출판 활동의 한 징험 -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韓國出版學硏究』, 통권 제49호, 2005, pp.225-227.

21) 강명관, 「근대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Vol.14 No.1, 1999, pp.50-56.

22) 박진영, 「책의 발명과 출판문화의 탄생 -근대문학의 물질성과 국립근대문학관의 상상력」, 『근대서지』, 12, 2015, pp.147-148.

우편 전신 등으로 인한 통신판매 등 근대적 유통 메카니즘이 등장한 것과도 연관된다.

3. 동아시아 역내 서점과 책의 이동

앞의 장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 출판의 시작과 전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각국의 근대 출판이 주로 관(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동해가는 점 그리고 출판 자체가 한 국가나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관에서 민으로 중심이 이동한다는 사실은 출판(서적)의 상업화와 대중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출판(서적)의 국제적 유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후자에 대해서 곧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그 이동과 유통의 양상을 살펴본다. 여기서 핵심은 서적인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책은 문자문화의 주된 대상로서 긴 역사를 통해 자리매김해왔다. 기술이 변화하고 또 상업화나 산업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책은 여전히 자기 쇄신을 도모하며 문자문화의 주요한 물질 형식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해왔다. 특히 20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출현한 근대의 새로운 인쇄매체인 신문 잡지가 책의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흔들었지만, 책은 이들과 협력하거나 경쟁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해왔다. 그 결과 인간 정신의 산물을 독립적, 체계적, 전면적으로 물질화해내는 데에는 늘 책이라는 형식이 선택되었던 것이다.[23]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식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책이 지닌 함의는 크다. 하지만 책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그 책을 유통시키는 서점의 동아시아역내 이동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일본인 서점의 중국 이동

19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지역 내 사람들 간의 이동도 활발해졌는데, 특히 일본인의 경우는 국가적 시책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나 동아시아 지역 곳곳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

23) 유석환, 「식민지시기 책 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1) -『매일신보』의 책 광고」, 『민족문학사연구』, Vol.0 No.64, 2017, pp.334-338.

(1) 일본인의 상하이 이주

일본인의 중국 이주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상하이 이주와 관련해서는 류젠후이의 저서 『마성의 도시, 상하이』에서 이미 메이지부터 쇼와기까지 지식인들의 상하이 방문과 그 인상에 대해서 잘 정리해놓았다. 그는 19세기 후반 상하이의 경이로운 '번성'과 그 '번성'이 초래한 '혼돈'에 다양한 '꿈'을 맡긴 일본인의 존재를 고찰하면서, 그들이 일본국내에서의 신분이나 직업은 물론 상하이 도항의 목적도 각자 달랐지만, 이 '혼돈'에 편승해 내지(內地)에서는 완수할 수 없는 일종의 '자기실현'을 지향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활발한 행동을 전개한 점이 공통된다고 지적했다.[24]

1920년대 이후 정비된 교통망을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투어리즘은 내지에서 조선으로, 만주로, 중국으로 일본인들을 향하게 만들었다. 특히 상하이는 일본인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였다. 종전(終戰)까지 상하이에서 소녀시대를 보낸 하야시 교코(林京子)는 『상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당시 상하이-나가사키 구간은 정기연락선인 상하이마루(上海丸)과 나가사키마루(長崎丸)가 있었다. 속도 20.9노트로 24-25시간 걸렸다. '상하이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감각은 시를 쓴 소년이 내지를 출발해서 선내에서 하루 밤을 보내면 다음날 아침 상하이에 입항한다는 그런 감상이다."[25] 상하이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감각은 바로 상하이와 나가사키를 하루만에 연결시키는 정기항로의 개설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특히 나가사키현 사람일 경우, 상하이가 오사카보다 가깝고, 또 상하이 조계에 일본거류민이 많은 것도 이들에게는 내지의 연장이라는 감각을 갖게 했다. 그리고 나가사키 사람들에게 1928년의 물가로 보아도 상하이행 뱃삯이 도쿄보다 더 싸다는 느낌이 있었다. 1923년에 이 정기항로는 개설되었다.

이후 상하이는 일본인 작가 등 지식인들에게 꾸준히 매력적인 도시였다. 예를 들어, 시인 가네코 미쓰하루(金子光晴)는 「해골 잔(どくろ杯)」라는 시에서 상하이로 가는 배에서의 감상을 해방감으로 표시했고, 사이조 야소(西條八十)는 「상하이 항로(上海航路)」라는 시에서 보들레르가 말한 「항해자」를 대중의 감각에서 표현하고자 했고, 소설가 요코미쓰 리이치(横光利一)는 유명한 『상하이』(개조사, 1932)라는 소설을 써

24) 류젠후이, 양민호 외 역, 『마성의 도시 상하이: 일본 지식인의 근대 체험』, 소명출판, 2020, 프롤로그. 서광덕·이국봉, 「19세기중엽 '상하이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고찰」, 『중국학』, 63호, 2018. 참조

25) 林京子, 『上海·ミッシェルの口紅—林京子中国小説集』(講談社文芸文庫), 講談社, 2001.

서 상하이의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혁명 등을 묘사했다. 평시든 전시든 상하이항로는, 일화연락선(日華連絡船)에 탔던 사람들에게 일본을 떠난 해방감과 시적 정취를 환기하는 공간, 리얼리즘의 산문보다 시와 노래가 창출되는 서정적 공간이었다.[26] 이 밖에도 많은 일본 문인들이 상하이를 방문하고 또 상하이에 대해서 글을 썼다. 류젠후이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상하이행을 일본인 자신의 시대, 국가, 체제, 존재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거대한 타자'로서 기능했다고 지적했다.[27]

(2) 일본인 서점의 상하이 이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본출판사로서 이미 상하이 본사를 둔 작신사도 있었고, 또 이보다 먼저 전문인쇄소였던 수문인쇄국이 청일전쟁 뒤에 바로 상하이에 생겼는데, 당시 상하이에서는 가장 완비된 인쇄소였다. 이 인쇄소가 뒤에 상무인서관에 인수되는 것은 이미 말했다. 이처럼 근대 초기 상하이 지역에서의 출판에서 일본과의 합작이나 협력이 적지 않았다. 청말부터 민국까지는 중국의 고전서적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것은 근대중일문화교류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청일전쟁이 끝나자, 서적을 통한 중일문화교류는 빈번해졌는데, 그 이유는 청일전쟁 뒤, 일본인에게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고찰할 필요성이 생기고, 한편 일본으로의 유학붐이 폭발하고, 중일문화교류가 한층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사네토우 게이슈(実藤恵秀)의 『中国人日本留学史稿』(1939년, 不二出版)는 이 방면 연구의 기념비적인 저작이다.

지금까지 서적을 매개로 한 중일문화교류에 관한 연구는 상하이에서 개업한 우치야마서점(内山書店)의 주인 우치야마 간조(内山完造)에게 집중되었다.[28] 하지만 우치야마 외에도 문구당(文求堂)의 주인인 다나카 게이타로(田中慶太郎)가 서적을 매개로 해서 궈모뤄(郭沫若), 루쉰(魯迅), 위다푸(郁達夫), 푸바오스(傅抱石) 등의 중국인과 교제했다. 즉 문구당도 유명한 중국서적을 취급하는 서점이며, 중일문화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이다.[29] 이와 함께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물이 바로 이

---

26) 河田和子, 「戰前の上海航路と昭和期の文學者」, 『九州大學學術情報リポジトリ』, 2001.

27) 배연희는 류젠후이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본인들의 상하이행을 다소 미화시키고 개별화시킴으로 일본 군국주의 침략을 어떤 의미에서 정당화하는 구절로 이해시킬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배연희, 「魯迅, 内山完造와 上海」, 『中國學報』, 제55집, 2007.

28) 小沢正元의 『内山完造伝』 (番町書房, 1972)이 중요한 문헌인데, 이외에도 『内山完造先生をしのぶ』 (中日友好協会大阪府連合会, 1959), 山本遺太郎의 『岡山の文学アルバム』 (日本文教出版, 1983), 小泉譲의 『魯迅と内山完造』 (図書出版, 1989), 吉田曠二의 『魯迅の友 · 内山完造の肖像』 (新教出版社, 1994), 『岡山県歴史人物事典』 (山陽新聞社, 1994), 『内山完造の生涯』(内山完造顕彰会, 2002) 등이 있다.

와나미 시게오(岩波茂雄), 곧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의 창업자이다. 이와나미는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고, 중일전쟁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는 중국인을 계속 원조하면서 아베 요시시게(安陪能成, 1883-1966, 일본의 철학자, 정치가)를 비롯해 중국에 머물면서 중일문화교류를 행한 일본인을 지지했다. 특히 오랫동안 상하이에서 중일우호를 위해 분주한 우치야마 간조를 향해 "우치야마씨, 저의 마지막 수단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대가 결심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 말해주면 저는 전면적으로 지원할 것이니 우리 둘이서 한번 해봅시다."[30]라고 말했고, 이를 계기로 1935년 이와나미는 구미로 여행을 갈 때 우치야마를 통해 루쉰과 만났다.[31] 그 뒤 1936년 이와나미서점은『魯迅選集』을 간행하였는데, 루쉰은 마쓰다 와타루(增田涉)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일에 대해 "이와나미서점에서 보낸 선집 2권이 그저께 도착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1932년에 문구당이『魯迅創作選集』을 출판하고, 개조사(改造社)도 이노우에 고바이(井上紅梅)가 번역한『魯迅全集』을 출판했던 것에 뒤이은 루쉰작품 번역이다. 이후에도 이와나미서점은 루쉰에 관한 서적을 몇 권 더 발간했는데, 1941부터 1942년까지 마쓰다가 번역한『支那小説史(上)』와『支那小説史(下)』를 '이와나미문고(岩波文庫)'로서 간행했고, 또 1953년부터『魯迅評論集』,『野草』,『朝花夕拾』,『阿Q正伝』,『故事新編』,『魯迅選集改訂版』등을 계속해서 출판했다.[32]

일본어 서적의 출판과 유통에서 바다를 건넌 연동과 대응이 실은 전전(戰前)의 중일문화교류의 중추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큰 족적을 남긴 우치야마서점의 행보를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출판사인 개조사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해보자. 1913년 중국을 건너가 각지를 돌며 안약을 팔기 시작한 우치야마 간조는 1917년에 상하이에서 부인 명의로 우치야마서점을 창업한다. 1924년에 규모를 두 배로 늘이고, 판매 서적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했으며, 이 때 중일문화인들이 참가하는 '문예만담회'를 개최하여 중일문화교류의 살롱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1927년에 루쉰이 이 서점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루쉰과 인연이 만들어졌고, 또 우치야마서점은 루쉰으로 인해 일본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 여기서 큰 역할을 한 이들이 바로 상하이를

29) 1987년 11월 25일, 田中慶太郎의 三男 田中壮吉은『「文求堂」主人田中慶太郎：中日友好的先駆者』(極東物産出版, 1987)을 출판했다. 그 가운데는 魯迅, 郭沫若, 郁達夫, 傅抱石 등과 田中慶太郎간의 편지 30통이 수록되었다. 1908년부터 1911년까지 田中慶太郎은 중국의 北京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중국어를 배우며, 중국선본(中国善本)을 탐방했다고 한다.

30) "内山君, 僕の最後の切札は中国にあるのだから、君が決心してやる事なら、なんでもいうてくれ、僕は全面的に支持する、一つ二人でやらう", 中島岳志,『岩波茂雄リベラル · ナショナリストの肖像』, 岩波書店, 2013, p.167.

31)『魯迅日記』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 "6일(1935년 5월 6일)밤에 우치야마 군이 자기 집 식사자리에 초대했다. 다카하시 미노루(高橋穰)와 이와나미 시게루(岩波茂雄)가 동석했다."

32) 許丹青,『岩波茂雄与中国 －中日文化交流的一个側面』,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

여행했던 일본문인들이었다[33]. 1926년 초와 봄에 다니자키 쥰이치로(谷崎潤一郎)와 가네코 미쓰하루(金子光晴)·모리 미치요(森三千代)부부가 우치야마의 중개로 중국지식인들과 교류하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우치야마서점과 개조사와의 관계는 이 시기 다니자키 쥰이치로에 의해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상해교류기」에서 "만주를 제외하면 (우치야마서점은) 지나에서 일본의 서점 가운데 가장 크다"라고 적었는데, 이 글이 발표된 5월에 『개조』라는 잡지가 우치야마의 협력하에 여름 증간호인 '현대지나호' 특집호를 편집하였다. 일본 종합지의 유일한 중국특집의 시도였는데[34], 여기서 '지나' 대신 '중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또 당시 남북으로 나뉘어 있던 중국의 지식계 그룹을 이 특집에서 모아낸 것도 의미가 있다. 우치야마서점이 당시 상하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조사가 중심이 되어 일본에서 일으킨 엔본(円本)붐 덕분이었다. 대량의 사상, 문예의 신지식(사회주의)을 중국으로 싸게 전달할 수 있었던 점에서 중국지식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일본어 서적의 중국 독자층 확대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개조사가 펴낸 사회주의적 사상경향이었던 것이다. 1928, 29년에 점포를 확장하면서 우치야마서점은 이사를 하였고, 1925년부터 1936년까지 12년간 최전성기를 누렸는데, 중국인 고객이 25%에서 70%까지 증가했으며, 루쉰과 연결된 시기이기도 하다. 좌익문화의 유행이 바다 건너 중일간에 공동의 관계를 형성케 했는데, 우치야마서점은 일본어 서적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금된 중국어 좌익출판물까지 공공연하게 판매했다. 그래서 상하이의 좌익문화 중심지역은 우치야마서점과 가까운 북사천로(北四川路) 서측의 다륜로(多倫路) 부근이었다. 한편 루쉰을 비롯한 중국현대작가를 일본에 소개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35]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시 상하이에는 앞장 1절에서 소개한 서점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상무인서관(1897), 광지서국(1898), 문명서국(1902), 회문당서국(會文堂書局, 1903), 유정서국(1904), 광익서국(廣益書局, 1904), 중화서국(1912), 백신서점(百新書店, 1912), 태동원서국(泰東圖書局, 1914), 대동서국(1916), 세계서국(1917), 민지서국(民智書局, 1918), 전신서국(傳薪書局, 1923), 광화서국(1926), 개명서점(1926), 광명서국(光明書局, 1927), 현대서국(1927), 생활서점(1932), 대중서국(大衆書局, 1932), 계명서국(啓明書局, 1936) 등의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출판사가 한 지역에

33) 内山는 中日友好交流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인을 魯迅에게 소개했는데, 1931년에는 増田涉을 魯迅에게 소개하고, 또 長谷川如是閑, 金子光晴, 室伏高信, 鈴木大拙, 横光利一, 林芙美子, 武者小路実篤 등을 소개했다.

34) 1920년대 동아시아 미디어의 상황, 중일문화교섭을 살피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서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35) 이상 秦剛. 「戰前日本出版メデイアの上海 -内山書店と改造社の海を越えたネツトワーク」, 『日本近代文學』, 第89集, 2013.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36], 명칭에서 보듯이 서점이란 말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서 서점이란 말이 널리 보급된 것 역시 우치야마서점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37]

개조사는 우치야마서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관련 문화활동을 기획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째, 편집자와 작가의 상하이 파견에 의한 의도적인 상하이 언설의 생산, 예를 들어 작가 요코미쓰 리이치와 마에다코 히로이치로(前田河廣一郎)를 상하이에 파견한 것이라든지, 1933년 버드나드 쇼의 상하이 방문 때에는 야마모토 사네히코(山本實彦) 사장이 편집자 기무라 키(木村毅)를 파견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루쉰을 비롯한 중국현대작가를 일본에 소개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 마쓰다 와타루로 하여금 『루쉰전』을 연재케 하고, 루쉰의 작품을 번역하여 루쉰 사후에 최초의 루쉰전집인 『대노신전집』(전7권) 발간하였던 것이다.

2) 일본인의 조선 이주와 서점의 이동

(1) 일본인의 조선 이주

일본인들은 메이지 이후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활발히 이주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일본인 사회를 형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인의 이주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대상 지역의 성격에 따라 첫째는 국내 이민이다.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로의 본토민 이주다. 둘째는 해외 이주인데, 메이지 때는 하와이와 미국 본토가 주 대상지였다. 이는 1885년 메이지 정부가 하와이 관약이민을 실시하여 본격화하였다. 셋째는 대만과 조선과 같은 식민지로의 이주이다.

조선으로 일본인들이 이주한 것은 메이지 초기 일본 거류지가 개항장에 설치되면서 비롯되었다. 1876년 부산이 강화도조약으로 개항되고, 그 다음해에 일본 거류지가 부산에 설치되면서 조선으로의 일본인 이주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러일전쟁은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에 분수령이 된 사건이었다. 1905년 러일전쟁으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조선 식민지화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일본정부도 조선 이주를 적극 장려했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나타난 조선 이주민의 변화는 이주자의 계층적 성격에서도 드러났다. 초기 이주자들은 일시적 이주를 생각하고 조선으로 온 경우가 많았고, 그 출신 계층도 빈농, 소상인과 소자본가, 부랑자나 뜨내기들이었다. 이들의 직업은 소매잡상인, 무역상, 행상, 전당포, 수공업, 건설노동자, 창기/잡부, 요식업 등 상업과 서비

36) 류젠후이. 양민호 외 역, 『마성의 도시, 상하이 -일본 지식인의 근대체험』, 소명출판, 2020.
37) 内山完造, 『花甲錄 -日中友好の架け橋』, 平凡社, 2011.

스업이 주였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는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한 일반인들과 식민관료, 기업인, 회사원 등 화이트칼라 계층이 늘어났다. 절대 다수가 대도시나 지방도시에 거주하고, 직업 구조상 관리, 피고용인, 상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38]

(2) 일본인 서점의 조선 이동

인쇄와 관련해서 조선 내 최초의 일본인 인쇄소는 1895년 3월에 설립된 하다노 인쇄소(波多野印刷所)였다. 이후 1900년대와 1910년대에도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인쇄소가 나왔으며, 또 인쇄소는 경성만이 아니라 대구, 목포, 부산 등지에서도 설립되었다. 일본이 경영하는 규모가 가장 큰 인쇄회사는 조선인쇄주식회사(1919)와 조선서적주식회사(1923)였다. 그 외에도 일본인 자본 인쇄소로는 에가와활판소(江川活版所), 모모야마인쇄소(桃山印刷所), 게이조인쇄소(京城印刷所) 등이 있었다.

그리고 최혜주의 논문은 한말 일제하에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간행사업이 진행되었고, 또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활동도 있었음을 밝혀내었다.[39] 제국 일본의 지리적 권역이 동아시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서적도 국경을 넘어 이동하였다. 그래서 조선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서점이 많이 개설되었다. 1906년 부산에 요시다하쿠분도(吉田博文堂)가 개점한 이래, 일한서방(日韓書房, 1906), 오사카야고(大阪屋號)서점의 경성 지점(1914) 등 일본인 경영 서점은 조선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서점이 조선인과 조선 근대문화에 끼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당시의 '서점'은 서적판매점뿐만 아니라 출판업을 병행하는 출판사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1876년 이후 조선에 온 일본인들이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 위주라면, 1905년 이후 넘어온 일본인들은 조선식민 사업을 담당할 관료집단과 지식인계층이 주류였다. 일한서방의 창립자인 모리야마 요시오(森山美夫)는 이런 재조 일본인들을 위해 일본 서적과 잡지를 판매하는 서점을 세운 것이다. 이후 일한서방은 자체 편집부를 두고 발행소의 형태로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로서의 체재와 기능을 갖추었다. 발행한 책은 주로 조선의 지도와 역사, 풍속, 민속 그리고 한국어 회화교재 등 조선으로 오는 일본인들을 위한 것이었다.[40]

한편 일한서방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서점은 같은 해에 부산에도 설립되는데, 앞에서 말한 하쿠분도서점(博文書店)이 그것이다. 그런데 부산의 하쿠분도서점을 조선에

38) 이상은 권숙인, 「도한의 권유」, 『사회와 역사』, 69, 2006, p.190.
39) 최혜주,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 『대동문화연구』, 제66집. 2009.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과 지방사 편찬활동과 조선인식」, 『사학연구』, 103, 2011.
40) 신승모, 「조선의 일본인 경영 서점에 관한 시론 -일한서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Vol.79 No.2, 2011, p.324.

진출한 일본인 경영 서점의 시초라고 말하고 있지만, 1902년에 일본에서 출판된『한국안내(韓国案内)』에는 다음과 같은 조선의 도매상 서점들이 소개되어 있다고 한다. 곧 경성상품진열소(京城商品陳列所, 京城), 히라타서점(平田書店, 京城), 야마오카서점(山岡書店, 仁川), 마치다이치요(町田一葉, 仁川), 요시미서점(吉見書店, 釜山), 오가타서점(尾縣書店, 釜山), 마츠오카츠네요시(松岡常吉, 木浦), 야마키타카메키치(山北亀吉, 郡山), 마츠우라츠네타로(松浦常太郎, 鎭南浦), 노세히데(能勢秀, 平壤), 와타나베상점(渡邊商店, 元山), 스미다마사키치(隅田政吉, 馬山浦)[41]이다. 위의 자료에서 보면, 1906년에 개점한 하당쿠분도서점 이전에도 부산에는 요시미서점(吉見書店, 吉見勝次郎, 天町3丁目)과 오가타서점(尾縣書店, 尾縣哲太郎, 天町2丁目 5番地)이 일본 내지와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2] 그리고 1920~1930년대 경성의 혼마치(本町, 충무로) 일대에 있었던 일본인 서점으로는 일한서방(日韓書房), 마루젠(丸善), 오사카야고쇼텐(大阪屋號書店) 경성 지점, 무라사키쇼텐(紫書店), 긴조도쇼텐(金城書店), 곤고도쇼텐(金剛堂書店), 긴조도쇼텐(金城堂書店), 세이분도쇼텐(誠文堂書店) 등이다. 그리고 일본인이 운영한 헌책방은 가네코쇼텐(金子書店), 분쿄도쇼텐(文教堂書店), 시세이도쇼텐(至誠堂書店), 군쇼도쇼텐(群書堂書店), 분메이도서점(文明堂書店), 벤쿄도쇼텐(勉強堂書店) 등이 있었다고 한다.[43]

3) 중국 출판물의 조선 이동

개화기 조선에 들어온 많은 서적은 대체로 일본에서 출판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보면, 한적(漢籍)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신서적의 경우도 일본 못지않게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온 책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일본처럼 중국 출판사나 서점이 조선에 지점을 내거나 운영을 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일본의 경우처럼 서점의 이동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중국을 통한 서적의 유입은 근대 초기에도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판물의 이동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중국 발행 서적의 조선 내 번역 양상을 소략하게 정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논문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선에서 간단히 파악해보았다.

---

41) 香月源太郎,『韓国案内』, 青木嵩山堂, 1902 p.62. 임상민·이경규,「식민도시 부산의 서점 연구 - 1910년대『부산일보』의 서점 광고란을 중심으로」,『동북아문화연구』, 제46집, 2016. 재인용
42) 임상민·이경규, 앞의 논문, 2016, p.49.
43) 박진영, 앞의 논문, 2015, p.146.

(1) 중국 출판사와의 직접 교역

1906년 화동서관(華東書館)은 번역과 중국서적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다음해에 설립된 광지서국(廣智書局)도 중국 상하이에서 책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출판도 겸했는데, 대동서관(평양), 김상만책사(서울), 대한매일신보 의주 지점에 지점을 두었다.[44] 그리고 개화기의 대표적인 출판사 겸 서점인 회동서관은 상하이에서 출판 제작(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唐版 수입 등) 그리고 상무인서관과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인쇄 출판 기관(동양고전의 직거래 등)과 출판무역을 전개했다.[45]

이와 함께 당시 조선에서의 중국 출판사와의 교역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 상하이 석인본의 수입이다. 이것은 왕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행해졌는데, 근대 초기 가장 많이 중국 서적을 수입한 서포(書鋪)로 평가되는 평양의 대동서관(大同書館)은 1906년 3월 개관한 뒤 1주일 만에 수천여 권의 서적을 판매했고, 다시 상하이에서 신간 서적 만여 권을 수입해왔다고 한다. 대동서관이 상하이에서 수입한 서적은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당시 상하이에서 일반 독자들 대상으로 간행한 서적의 많은 수가 석인본이었기 때문에, 국내 서포에서 수입한 상하이 서적 역시 거의 석인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상하이에서 유입된 석인본은 동아시아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당시 국내에 유입된 석인본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동아시아 지식 유통의 지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1870년대-1930년대 상하이 출판 석인본의 출판사별 국내 소장 현황을 보면, 대략 3천여 건이며, 상하이 석인본 출판사도 소엽산방(掃葉山房), 교경산방(校經山房), 금장도서국(錦章圖書局), 점석재(點石齋), 광익서국(廣益書局), 동문서국(同文書局), 상해서국(上海書局), 천경당(千頃堂), 홍문서국(鴻文書局), 홍보서국(鴻寶書局) 순으로 해당 출판사의 석인본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소엽산방에서 출간한 석인본이 968건으로 전체 석인본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를 볼 때 소엽산방 출판 서적을 당시 한중간의 지식 유통의 주요 매체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46]

중국의 서적을 수용한 예로는 동양서원이 상무인서관의 『설부총서』 수록 작품 가운데 6편을 수용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동양서원이 『설부총서』 수록

---

44) 강명관, 앞의 논문, 1999, p.52.
45) 이종국, 앞의 논문, 2005, p.236.
46) 윤지양, 「1870년대~1930년대 上海 출판 석인본을 통한 근대적 시각 이미지의 국내 유입 양상 연구」, 『중어중문학』, 77호, 2019, pp.333-340.

작품을 번역·번안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출판 기획 자체를 똑같이 모방할 만큼 이 총서와 유사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설부총서』가 1집당 10편씩, 총 10집 100편인 것처럼, 동양서원의 『소설총서』 또한 1집당 10편씩 총 4집 40편이 발행되었다.[47] 그리고 『황성신문』이 발행된 뒤 12년간의 서적 광고를 수집 정리하여 총 751종이라는 통계를 낸 연구는, 이 가운데 388종이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밝혔다.[48] 이 수치 안에는 중국에서 발행된 고적도 있고, 또 일본서적을 중역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에서 수입된 석인본 책의 종류와 일본에서 들여온 서적이나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서적 그리고 한국에서 출판된 서적의 종류를 모두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문헌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 또는 출판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긴요하다.

(2) 번역을 통한 신지식의 수용

조선인 번역자의 입장에서 일본어 텍스트와 중국어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감각의 일이었다. 전자는 서구발 지식을 대신 받는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후자는 수용자의 주체성을 상당히 환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특히 당시는 지식의 유통이나 담론의 형성에 걸리는 시간을 되도록 단축하는 것이 번역의 지향이었는데, 이런 점에서도 중국어 텍스트는 매력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양계초의 수용 양상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양계초의 글은 중국 상하이의 광지서국 출판사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양계초 개인의 저작만이 아니라 많은 광지서국의 서적이 한국에 유통되었다. 광학서포가 『황성신문』 1906년 10월 29일자 서적 광고에 낸 많은 책들이 광지서국에서 출판한 것이다. 광지서국은 1902년에 서적을 가장 많이 출간했는데, 절대적으로 일본을 경유한 번역 및 중역의 비중이 많았다. 따라서 광지서국의 사례를 통해 중국을 경유한 번역은 한국적 근대의 형성에 생각보다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9] 그리고 1908년부터 1913년까지 조선에 출판된 번역 번안소설의 유입 경로가 일본->한국, 일본->중국->한국, 서양->일본->한국, 서양->중국->한국, 서양->일본->중국->한국 등으로 다양하다는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지식 수용의 경로 또한 복잡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47) 강현조, 「한국 근대초기 번역·번안소설의 중국·일본문학 수용 양상 연구 -1908년 및 1912~1913년의 단행본 출판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Vol.0 No.46, 2012, pp.25-26.
48) 黃永遠, 「근대전환기의 서적과 지식체계 변동 -『황성신문』의 광고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1집, 2013, p.330.
49) 손성준, 「동아시아 번역장(飜譯場)과 서구영웅전 -번역 경로와 번역 매체를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pp.6-8.

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50]

4. 나오며

이상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동아시아 근대 출판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 그리고 근대 출판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연구주제이다. 짧은 논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제다. 여기서는 지식네트워크가 다양한 형식을 통해 형성되고, 그 가운데 출판(물)의 유통이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 출판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시각을 도입하여 근대 초기라는 시대에 맞춰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들어가며'에서 세계화를 언급한 것도 정치, 경제 그리고 과학적인 요소에 의해 세계화가 전개되지만, 이 흐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식을 바꾸어 가는 것은 결국 전 세계가 동일한 지식을 전유하고 이를 통해 사유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디어의 존재가 중요하다. 동아시아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그래서 소위 근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물질화된 형태로 유통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적이며, 그 서적은 서점(또는 출판사)를 중심으로 한 유통망을 통해 이동되었다. 그런데 근대 초기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 유통의 중심인 서점이 서적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여러 해역도시에 지점을 설치하여 하나의 서점(출판)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런 사례를 앞에서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를 출판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먼저 출판이라는 넓은 범주를 갖는 분야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쇄(소), 출판(사), 서점, 독자층을 구분해서 살피고, 또 단행본(책)과 신문/잡지/인터넷 등의 매체와의 차이도 인정하고 파악해야 한다. 특히 앞의 출판과정에서 책이 이동하는 유통 기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서점의 형성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지식의 수용과 형성에 있어서 수반되는 수용자(저역자)의 선택과 변용 그리고 (독자)의 오독이 만들어내는 오리지널과 복사물간의 차이로 인한 새로운 문화의 탄생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이(異)문화간 교류가 왕성했던 근대 시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셋째, 근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50) 강현조, 앞의 논문, 2012, p.24.

수용 경로에 대한 정리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근대 이후 해양(바다)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세계관이나 인문학적 인식 그리고 과학(사회과학과 자연과학)적 정보 등이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근대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이를 위한 토대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근대 출판의 성립과 이동에 대해 검토해보기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 상황을 정리해본 것에 불과하다. 앞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관, 「근대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민족문학사연구』, Vol.14 No.1, 1999.

강현조. 「한국 근대초기 번역·번안소설의 중국·일본문학 수용 양상 연구 -1908년 및 1912~1913년의 단행본 출판 작품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의 연구』, Vol.0 No.46, 2012.

권숙인, 「도한의 권유」, 『사회와 역사』, 69, 2006.

김미정, 「上海에서의 근대적 독서시장의 형성과 변천에 관하여」, 『중국문학』, 제40집, 2003.

김학순, 「전근대 일본의 서적에 의한 광고 -출판물과 상품 선전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50, 2019.

류현국, 「경술국치 이후, 국내 출판 인쇄계의 동향(1890-1945)」,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ultural Product Art & Design』, Vol 40, 2015.

문연주, 「출판을 통해 보는 일본 문화의 세계화」, 『인문언어』, 12-2, 2010.

박진영, 「책의 발명과 출판문화의 탄생 -근대문학의 물질성과 국립근대문학관의 상상력」『근대서지』, 12, 2015.

배연희, 「內山完造와 上海」, 『中國學報』, 제55집, 2007.

서광덕, 「동북아해역 교통망과 지식네트워크 -청말(淸末) 중국유학생과 그 잡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2020.

서은영, 「근대 인쇄문화의 형성과 『대한민보』 '삽화'의 등장」, 『우리어문연구』, 통권 44호, 2012.

손성준, 「동아시아 번역장(飜譯場)과 서구영웅전 -번역 경로와 번역 매체를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신승모, 「조선의 일본인 경영 서점에 관한 시론 -일한서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Vol.79 No.2, 2011.

유석환, 「식민지시기 책 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1) -『매일신보』의 책 광고」, 『민족문학사연구』, Vol.0 No.64, 2017.

이종국, 「개화기 출판 활동의 한 징험 -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韓國出版學硏究』, 통권 제49호, 2005.

임상민·이경규, 「식민도시 부산의 서점 연구 -1910년대 『부산일보』의 서점 광고란을 중심으

로」, 『동북아문화연구』, 제46집, 2016.
윤지양, 「1870년대~1930년대 上海 출판 석인본을 통한 근대적 시각 이미지의 국내 유입 양상 연구」, 『중어중문학』, 77호, 2019.
최혜주,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 『대동문화연구』, 제66집, 2009.
_____,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과 지방사 편찬활동과 조선인식」, 『사학연구』, 103, 2011.
한보람,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립」, 『진단학보』 , 100, 2005.
함동주, 「일본제국의 성립과 박문관의 출판활동 -청일전쟁기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13, 2010.
함동주, 「러일전쟁기 일본의 조선이주론과 입신출세주의」, 『역사학보』, 221, 2014.
黃永遠, 「근대전환기의 서적과 지식체계 변동 -『황성신문』의 광고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1집, 2013.
데이비드 헬드, 앤터니 맥그루, 데이비드 골드브라트, 조너선 페라턴 지음, 조효제 옮김, 『전지구적 변환』, 창비, 2002.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역,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요시미 순야(吉見俊哉), 박광현 역,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동국대 출판부, 2008.
류젠후이, 양민호 외 역, 『마성의 도시, 상하이-일본 지식인의 근대체험』, 소명출판, 2020.
許丹青, 『岩波茂雄与中国－中日文化交流的一个侧面』.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
實藤惠秀, 하동호 역, 「近代中國의 出版文化」, 『出版學研究』, 1971.
河田和子, 「戰前の上海航路と昭和期の文學者」, 『九州大學學術情報リポジトリ』, 2001.
中島岳志, 『岩波茂雄リベラル・ナショナリストの肖像』, 岩波書店, 2013.
辻本雅史, 「「教育のメディア史」における「江戸」 -「文字社會」と出版文化」, 『교육사학연구』, 제20집 제2호, 2010.
呂慧君, 『日中友好の<媒介者>内山完造の文學·文化活動に關する多元的研究』, 關西學院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秦剛, 「戰前日本出版メデイアの上海 -内山書店と改造社の海を越えたネツトワーク」, 『日本近代文學』, 第89集, 2013.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出版, 書籍, 東亞, 世界化, 网络, 印刷
	영문	Publishing, Printing, books, Sea-city, Network, East Asian, Globalization

Preliminary Study for Research on Knowledge Network of Modern Northeast Asia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and Movement of Modern Publishing in East Asia

Seo, Kwang-Deok

Modern times are the age of type media. The invention of type has led to a revolution in printing, and the development of printing has enabled the publication of large amounts of newspaper magazines and books. And based on this, the general public got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they could express their thoughts. The modern publications in East Asia were in the sea areas, and knowledge was spread and accepted to each area centered on these cities. The acceptance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in the modern East Asia was based on the publication network of Northeast Asia.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ublishing network of modern Northeast Asia was formed, focusing on each country in East Asia, and summarizes how the publications produced in this region were moved between the sea cities by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This is a basic work to examine what role the popular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publications in East Asia since the modern era played in preserving modern knowledge of people in this region and furthermore, how it affected the formation of humanistic networks in Northeast Asia.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서광덕 / 徐光德 / Seo, Kwang-Deok
	소 속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Em@il	skd2021@hanmail.net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05.20	심 사 일	2020.05.25	게재확정일	2020.06.11